



보도자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중심기관 KISTI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대전(본원) : 대외협력실 이종성 042-869-0976 / 이해준 0676 / 손영주 0997

문의 : 과학기술연구망센터 석우진 센터장(042-869-0596)

배포번호 : 2020-20

배포일자 : 2020.04.07.(화)

매수 : 보도자료 3매

(첨부자료 포함)

배포처 : 대외협력실

KISTI, KREONET 활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파키스탄 의료진간 온라인 협업 세미나 개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최희윤, 이하 KISTI)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정보센터(이하 MedRIC)와 공동으로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경험에 대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화상회의실에서 국제 화상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화상세미나는 국제보건위기인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마련됐으며, 파키스탄의 국가연구 및 교육네트워크(PERN)와 KISTI의 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의 협력을 통해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이영성 교수가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충북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정혜원 교수가 '국내 코로나 19 치료임상'에 대한 발표를 하였으며, 한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김동현교수가 '공중보건 위기로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대한 발표를 했다.

이날 화상세미나에는 파키스탄의 국가바이러스연구소(ICCBS, National Institute of Virology)의 아서 박사(Dr. Arthar)를 포함한 11명의 임상의사와



의대교수가 참여해 주로 코로나19의 치료, 예방, 성장 가능성, 효과적인 확산 조절 방법, 시험 방법, 다양한 환자 유형에 대한 한국의 경험, 개인 보호 장비의 중요성 등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며, 이러한 세미나를 주최해준 KISTI와 MedRIC의 공헌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밝혔다.

KISTI 최희윤 원장은 "국가 인프라인 한국의 KREONET, 파키스탄의 PERN을 통해 출연연이 국가 간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첨부] 국제 화상회의 화면

